

말씀과 기도로 열매맺는삶

(2019.8.5. ~ 8.11.)

이번 주 읽을 본문	가정	삿 19 - 삼상 1	행 23 - 롬 1
	개인	렘 33 - 40	시 3 - 14
이번 주 암송구절	바른 신학 - 전적 부패		
	<p>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p>		



시편 3,4편 / 폭풍 속에서 누리는 평안**개요**

3:1-8 위기 속에서 누리는 평안

4:1-8 고난 속에서 누리는 평안

시편 3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입니다. 압살롬이 반역하여 다윗은 도망을 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4절). 하나님이 응답을 받은 다윗은 두려움에서 벗어나 잠을 잡니다(5,6절). 그의 인생을 불드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8절).

시편 4편은 곤란 중에 드린 다윗의 기도로, 슬픔으로 시작하지만 신뢰의 고백으로 끝나는 시입니다(1-2,7-8절). 다윗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욕되게 하나, 그럼에도 범죄하지 않도록 권면합니다(2,4절).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함과 의지함으로 나아가길 권면합니다(5절). 그러나 이와 같은 현실은 금방 개선되지 않습니다(2절). 그럼에도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3절). 그때 하나님은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7,8절).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분명한 행위 중 하나인 기도는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을 이길 힘을 줍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빌 4:6,7).

나의 묵상, 나의 기도**기도**

어려움 중에도 기도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붙들여 주시옵소서.

시편 5,6편 / 인자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개요**

5:1-12 악한 자들에게서 구원해주시길 바라는 기도

6:1-10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구원해주시길 바라는 기도

다윗은 응답해주시길 바라고 구하며 자기 왕이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5:1-3).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악한 자들을 두고 기도합니다(5:4-6). 또한 자신은 더욱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의를 향해 나아갑니다(5:7,8). 의인의 결말과 악인의 결말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각기 복과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5:9-12).

시편 6편은 하나님께 징계 받는 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내면의 고통과 원수들의 박해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근거로 구원해주시길 기도합니다(6:1-7). 회개하는 자는 징계로 인한 모든 고통이 끝날 것을 기대합니다(6:8-10; 호 6:1).

하나님은 우리 왕이시며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대한 처분을 왕이신 하나님께 맡기며, 또한 그분의 인자하심을 근거로 어느 때고 구원해주시길 기도합니다. 타인의 악으로부터, 나의 죄로부터 구원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스펀전 목사님은 "기도는 그 날의 생활을 여는 열쇠이고, 그 날의 생활을 닫는 자물쇠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의 시작과 끝이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기도**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십니다. 그 기쁘고 선하신 뜻을 따라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악의 한복판에 내버려두지 마시고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의의 길을 따라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8월 7일(수)

삿21

행25

렘35

시7,8

시편 7,8편 /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찬송

개요

7:1-17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를 찬송

8:1-9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찬송

성도는 주께 피할 때 구원을 얻을 줄 믿습니다(7:1,2). 또한 자기 삶에 악을 두지 않고 살기에 힘씁니다(7:3-5). 그리고 하나님이 공의로 불의를 심한 하실 것 역시 믿습니다(7:6-16). 성도는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감사하며 찬송합니다(7:17).

하늘과 땅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8:1).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 대적을 잠잠하게 하십니다(8:2).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달과 별을 배풀어 사람들을 돌보십니다(8:3,4). 사람에게 주신 영화와 존귀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8:5). 그들에겐 하나님의 일이 맡겨졌습니다(8:6-8). 이렇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8:9). 참고로 여기서 사람으로 일컬어지는 대상은 이중적입니다. 구속 받은 성도와 그리스도를 모두 가리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믿음은 막연하거나 자의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의 계시를 따라 그의 인자와 공의, 또한 창조와 섭리(다스리심)를 믿음으로 찬송합니다. 성경의 계시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고 넓어질수록 성도의 찬송은 풍성해집니다. 계시하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하루가 되길 소원합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

기도

크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은 우리 구원이시며 공의를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깊고 선하니 모든 일을 행하시는 주님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시편 9편 /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개요**

- 1-6 과거의 은혜
- 7-12 미래의 소망
- 13-20 신자의 기도

시편 9편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푸신 역사를 기억하며 감사의 찬송으로 시작합니다(1,2절). 주님은 원수들을 물리치시며 의로운 백성을 변호하셨습니다(3-6절). 의로운 백성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께 소망이 있습니다(7,8절). 그는 백성들을 기억하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9-12절). 그러므로 신자는 은혜를 베푸실 줄 믿고 찬송할 날을 바라며 기도합니다(13,14절).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며 궁핍하고 가난한 주님의 백성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15-19절).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며 모든 사람들은 연약한 인생일 뿐입니다(20절).

크리소스톰은 "부르짖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도는 파선 당한 자의 항구요, 물에 빠져가는 자의 생명줄이요, 저는 자의 지팡이요, 가난한 자의 보석광이요, 병든 자에게 고치는 자요, 건강을 보호하는 자요, 기도는 복된 기도여 인간의 화를 정복하는 자이며, 인간의 행복의 든든한 기초이며, 언제나 계속하는 기쁨의 원천이고, 철학의 어머니로다. 극도의 궁핍에서 한숨 지으면서라도 기도하는 자는 누구보다도 행복하다. 왕좌에 앉았어도 기도할 줄 모르는 자는 가장 불쌍한 자이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연약한 인생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갑시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기도**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는 기도를 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주님의 백성이 주님께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행복 누리며 사는 인생되게 하옵소서.

시편 10편 / 여호와여 어찌하여**개요**

1-11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십니까

12-18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만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1절). 오늘 시편은 그런 마음의 경험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무엇보다 성도가 악인에 의해 고통 받을 때 그와 같은 생각과 느낌이 듭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압박하고,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모습을 보며, 또한 하나님이 보지 않으신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합니다(2-6절). 그렇게 악한 자들이 계속해서 악을 행함을 봅니다(7-11절). 성도는 그런 현실 앞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12절). 주님은 그들의 말과 달리 그들의 행위를 아시며 갚으시는 분이기에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길 기도합니다(13-18절).

악한 자들이 횡포를 부릴 때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보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뜻을 가장 중시하여 행하는 악행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그들의 악행을 아뢰어 마땅합니다. 그러한 성도의 기도는 악인과 달리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이기에 오래 참으며, 확신이 있습니다(12,14절).

나의 묵상, 나의 기도**기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며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찌하여 악인들의 횡포를 내버려두십니까? 우리 기도를 들으시옵고, 주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통치를 우리가 보게 하옵소서.

시편 11,12편 / 타락한 시대에 붙잡는 진리**개요**

11:1-7 터가 무너진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12:1-8 비열한 자가 높임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은밀한 곳에서 활시위를 당기는 악인으로부터 피하라고 합니다(11:1,2). 왜 그런가 하면 터가 무너진 것처럼 악인들이 득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11:3).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눈이 그들을 감찰하시므로 성도는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11:4-7).

시편 12편도 11편과 유사한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는 듯한 날들을 보냅니다(12:1). 비열한 사람이 높임을 받고 악인들을 곳곳에서 봅니다(12:8). 거짓과 아침이 일반입니다(12:2). 그러나 대세가 그러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며, 그 세대로부터 자신들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12:3-7).

타락한 시대상을 보며 사람들은 탄식합니다. 성도들은 그런 시대에 더욱 소외감과 괴리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순결한 여호와와 말씀이 거짓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지키고 보존합니다. 옳은 것이 무엇인지 모호해지고 타협을 요구하는 시대에 하나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기도**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적당히 타협하여 살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어 거룩한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시편 13,14편 / 하나님이 계시기에**개요**

13:1-6 어느 때까지니이까

14:1-7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시인은 네 차례에 걸쳐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 하나님께 탄식합니다(13:1,2). 기다림과 탄식은 성도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나아가 탄식하는 기도는 성도의 전형적인 기도입니다. 성도는 기다림 속에 눈을 밝혀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구합니다(13:3,4). 그 눈을 밝혀 주심으로 깨어난 성도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주의 구원을 기뻐하며, 그 은택을 찬송합니다(13:7,8).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자를 가리켜 어리석다 합니다(14:1). 그런데 타락 이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으며,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돌아올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14:2,3). 회개하지도 않습니다(14:4). 악인의 세대처럼 느껴 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때도 의인의 세대입니다(14:5,6). 의인들이 그로 인해 구원과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14:7).

성도는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의 주권과 능력을 믿고 낙망하지 않습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잠 20:22) 이와 같이 하나님께 눈을 돌려 그를 바라보며 삽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기도**

주님으로 인한 평안과 기쁨이라는 말이 우리 마음에 심기고 꽃피어 열매 맺게 하옵소서.

❖ 설교 노트

본문:

날짜:

--	--

❖ 설교 노트

본문:

날짜:

--	--

풍성한 열매를 더하는 순모임 나눔

1. 이사야 선지자는 여전히 죄에 빠져 있는 백성들을 위해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하나요?(사 63:15,16)
2.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사랑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묘사되고 있나요?(사 63:8,9; 시 68:19; 신 32:10-12)
3.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을 위해 모세처럼 기도하는 모습은 누구의 그림자인가요?(요일 2:1; 롬 8:34; 참고 출 32:11-13)
4.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신가요?(요 16:13; 사 63:14)
5.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중보자 그리스도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기도함으로 풍성한 신자의 삶을 영위하는 우리 모두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제목 나눔

1. 교회를 위한 기도

- 1)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교회로 살도록
- 2) 성숙한 신앙을 가진 교회로 자라나도록
- 3) 서로를 돌아보며 섬기도록
- 4) 부모님들의 건강을 위해

2. 나라를 위한 기도

- 1)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가 원만해지도록
- 2) 사회와 경제가 안정을 찾도록
- 3) 다음 세대 지도자가 준비되도록

3. 나를 위한 기도

- 1)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적용하며
- 2)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묵상한 말씀을 토대로